

2026년 주님의교회 표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1

-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_ 디모데전서 4:5
-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17-18

오늘의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2

교사주일·청년주일.
기쁨으로 하나 된 공동체

유아숲·청소년숲 교사 힐링데이와 청년부 요리대회의 현장

2026 주님의교회 청소년부 공동체
VISIONTREE
WORSHIP BUILDER

청소년부 교사힐링데이
최고의 선생님을 위한 가장 화려한 초대

선생님,
감사합니다

유아숲 교사힐링데이

HB 요리사
청년부 요리대회

피움, 세움, 이룸
그리고 새가족 공동체의
자존심 맛대결

꿈꾸는 3막

청청한 꿈을 품고 마치는 꿈꾸는 3막 4기 1학기

꿈꾸는 3막 4기 1학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 3막을 꿈꾸며, 함께 보낸 날들이 깊은 영성의 뿌리로 뻗어 나갔으리라 확신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청청(靑靑)한 꿈꾸는 3막을 기대합니다. 10월 첫 주에 시작될 2학기에도 풍성한 나눔과 성장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은선, 김보람 목사



꿈꾸는 3막

감사로 다시 쓰는 인생 3막

꿈꾸는 3막 4기 1학기를 마치며

안녕하세요? 남편 이성남 집사와 같이 꿈꾸는 3막에 참여한 최영옥입니다. 생활 전선에서 바쁘게 달리다 보니 어느새 '70'이라는 숫자가 생소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꿈꾸는 3막을 통해 '노년에 어떤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될까'하는 기대로 참석했습니다.

올해 봄 어느 날 남편이 등과 팔이 아프다고 해서 정형외과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가끔 가슴도 안좋다 하길래 종합병원을 예약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월 31일 화요일 시니어 교구 예배 가는 중에 "가슴이 안 좋은데 교회 가면 괜찮아지겠지?"하는 거예요. 저는 침착한 마음이 들면서 왜 그런지 진찰이라도 받자며 발길을 돌려 내과로 갔습니다. 검사 후 협심증의 의심되니 빨리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라며 소견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훈병원 응급실을 통해 바로 시술에 들어갔습니다.

2시간 후 담당 의사의 첫마디가 "돌아가실뻔 했습니다."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탠드를 삽입했고 시술은 잘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과 친척 모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래 입원할 줄 알았는데 4일 만에 퇴원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랜 직장 생활 은퇴 후 꿈에 그리던 남해와 제주도에서의

한달살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정과 숙소를 짜며 "어때?"하고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지만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내키지 않아 자꾸 날짜를 미루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만일 떠났다면 어찌 됐을까? 의사 말대로 혈관이 막히면 3분 안에 죽을 수도 있다는데 과연 여행지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는 꿈꾸는 3막 8주 동안 빠지지 말아야겠다는 이상한(?) 각오가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꿈꾸는 3막을 통해 남편을 살리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했습니다.

삶을 뒤돌아보면 누구나 그렇듯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며 괴로워하기는 했으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다. 그냥 묵묵히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다리 아프고 땀이 흐르고 힘들지만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정돈된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지듯 지나온 모든 힘든 기억들이 오늘의 감사로 남습니다. 모래알보다 작은 미미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손 내미신 나의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책 중의 책 성경을 주셔서 우리를 늘 빛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는 두 분의 목사님을 비롯해 꿈꾸는 3막 모든 조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



꿈꾸는 3막
오행시

꿈꾸는 3막, 꿈꾸는 산책

꿈 : 꿈은 하나님 뜻을 품고 꾸고
꾸 : 꾸불 꾸불한 언덕 넘어
은 : 은은한 아지랑이 피어 오르듯
삼 : 삼삼오오 짝을 지어
막 : 막강한 성령의 불을 피웁시다

꿈 : 꿈은 크게 꾸고
꾸 : 꾸불 꾸불한 마음은 낮추고
은 : 은은하게 들려오는 파도처럼
산 : 산 증인으로 살아서
책 : 책 중에 책인 성경을 증거합니다

문연자 / 1조

꿈 : 꿈 속에 예수님을 봅니다
꾸 : 꾸밈없는 모습 손과 발의 상처를 봅니다
는 : 은은하게 제 이름을 부르십니다
산 : 산들산들 봄바람이 불어와
책 : 책장을 넘기듯 고요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꿈 : 꿈을 좇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꾸 : 꾸준히 앞만 보고 왔습니다
는 : 은발의 머리가 된 것도 모르고
삼 : 삼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막 : 막이 내릴 때 아름다운 결말을 지었냐고

고경임 / 1조

꿈 : 꿈을 잃어버릴 때 인간은 늙는다
꾸 : 꾸준히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은 : 은혜에 감사하며
삼 : 삼막의 꿈을 가꾸어 가자
막 : 막막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

정상기 / 1조

꿈 : 꿈 속에서 희망을 속삭여 주시고
꾸 : 꾸불 꾸불한 터널도 빛의 속도로 통과시키고
은 :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어
산 : 산 소망을 주시고
책 : 책 중에 보배인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미원 / 1조

꿈 : 꿈꾸듯이 지나온 나의 인생길
꾸 : 꾸는 꿈마다 이루진 못했지만
는 : 는다고 자신했던 신앙의 성숙은 더디어도 오늘도
산 : 산 같은 하나님 앞에
책 : 책임을 느끼며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김순희 / 1조

꿈 : 꿈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면
꾸 : 꾸준히 믿음이 생겨
는 : 는 것은 말씀의 감사였더라
삼 : 삼막에 이르러 돌아보니
막 : 막힘없는 은혜의 세월이더라

이형구 / 4조

꿈 : 꿈은 청소년기에 꾸는 것인 줄 알았는데 노년기에도 꿈꾸게 하시고
꾸 : 꾸준한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에
는(은) :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하여라.
삼 :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막 : 막힌 물길을 열고 흘러 보내라는 꿈꾸는 3막 너무 좋아라. 권택정 / 1조

권택정 / 1조

꿈 : 꿈꾸는 3막이 있는 뭍
꾸 : 꾸물거리겠는가
는 : 는개가 온 산을 냉혹하게 얼려도
산 : 산으로 산으로 저 높은 하나님의 산으로
책 : 책임지고 우리 모두 함께 완등해요

이희숙 / 5조

꿈 : 꿈에도 생각지 못한 주님의 은혜가 꿈꾸는 3막으로 인도하셨네
꾸 : 꾸밈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는(은) : 은혜 속에 영육간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네
산 : 산성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되시며 나의 구원이신 주님
책 : 책임 있는 주의 자녀로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조영미 / 1조

꿈 : 꿈을 잃고 목적없이 사는 것처럼 무력했던 내 인생이
꾸 : 꾸고 보니 아름다운 인생 3막을 경험하게 하심을 깨닫고
새 힘을 얻었네
는 : 는 것은 내 자존감이요
삼 : 삼막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니
막 : 막 살아온 지난 삶에서 온전히 돌이킨 나를 향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구나

이정춘 / 4조



가정사역원
해피맘스쿨

복 있는 엄마, 해피맘

가정사역원의 태교 프로그램인 '해피맘스쿨 13기'가 4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새 생명을 기다리는 시간은 그 무엇보다 경이롭지만,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직장인 예비 엄마들에게는 긴장과 피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13기는 바쁜 일상을 보내는 엄마들을 배려하여 유튜브 동영상 강의와 네이버 밴드를 통한 소통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 각 가정으로 『40주 시편 태교』, 『말씀 태교 동화』 등 주요 교재와 주차별 활동 준비물을 모두 발송하여 각자의 공간에서 편안하게 태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4주간의 여정은 '복 있는 엄마, 시편 태교'라는 주제로 예배, 말씀, 감사, 찬양을 통해 아이를 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강 '복이 되게 하소서'에서는 감정 카드를 통해 엄마의 마음을 먼저 돌보

며 시작했고, 2강에서는 애착 인형을 만들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평안의 기도를 심었습니다. 이어지는 3강에서는 매일의 감사 일기를 통해 범사에 감사하는 영성을 훈련했으며, 마지막 4강에서는 주기도문 머그컵에 커피나 차, 물을 마시며 '복되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특별히 윤병주 집사님의 스트레칭 영상은 임신으로 몸의 변화를 겪는 엄마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엄마들은 자신의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까지 평안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엄마들의 따뜻한 나눔과 태교 활동 인증 사진들은 오프라인 못지않은 감동과 연결감을 선사했습니다. 귀한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이 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해피맘스쿨 13기를 통해 뿌려진 축복의 씨앗들이 각 가정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영원 목사 / 가정사역원



2026 ♥해피맘스쿨 13기♥		
주제	복 있는 엄마, 시편 태교	
일정	2026년 4월	
장소	유튜브 동영상	
목표 및 준비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마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기도와 찬양, 태교 활동을 통해 태중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누리는 주님의교회 임신부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40주 시편 태교, 『말씀 태교 동화』, 『태아축복기도문 미니북』, 감정카드, 필기도구, 주차별 활동 자료 등		
세부 내용		
순서	주요내용	활동
1강	01 복이 되게 하소서	여는 기도 OT, 감정카드
2강	11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13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20 예배의 복을 주소서	애착인형 만들기
3강	17 감사하게 하소서 25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30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 일기
4강	26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소서 31 아도왕을 찬양하게 하소서	닫는 기도 주기도문 머그컵

가정사역원
해피맘스쿨

시편태교로 시작된 우리 가정의 첫 축복

태교를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마음과 어색함에 따로 태교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김요한 목사님의 소개로 해피맘스쿨을 신청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태교도 시작하고 아기에게 읽어주기 좋은 책들도 많이 받아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책 내용을 통해 아기를 위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도 갈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태교 책 덕분에 매일 자기 전에 남편이 아기에게 태교 책을 기도와

함께 한 장씩 읽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생겼고, 그 시간은 저와 아기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너무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태교를 해주던 중 태동을 처음 느끼게 되어 자신이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 실감이 난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아가라 현실성이 없었는데 진짜 튼튼이가 뱃속에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좋은 교재와 강의 준비해주시고 봉사 해주신 가정사역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른 수강생분들도 축복 속에서 아기 건강히 잘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교육 감사드립니다! 전수빈

가정사역원
해피맘스쿨

태교의 시간을 넘어 믿음의 시간으로

4주간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태교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 삶의 묵상과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 한 성령님을 깊이 느낄 수 있어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성경(시편)이 말하는 참된 복을 깨닫게 하시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를 '복 있는 엄마'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입덧약을 끊어보려 했지만, 다시 심해진 입덧으로 인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산과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강의를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찬양 사역자이자 찬양팀 리더로서 늘 마음에 새기고 고백해 왔던 내용임에도, 잠시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음악

이 된다는 말처럼, 찬양의 능력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승리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21

처음 나누었던 묵상처럼, 이 모든 고백이 저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콩콩이)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믿음의 시간을 함께 섬겨주신 목사님들과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시간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한 모든 수강생분도 건강하게 출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하은

외국인유학생선교부
한국문화 체험행사

세계의 친구들, 복음의 소망

지난 5월 9일 토요일, 해외선교위원회 외국인 유학생 선교부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반기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올림픽 공원에서 가졌습니다.

아침 10시 30분, 한성백제역 2번 출구로 하나둘씩 모여드는 학생들은 내 학생이 언제 오나 하며 기다리고 계시던 선생님들을 보고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에, 이번 봄학기에 새로 시작한 반의 경우에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만남이 더욱 반갑고 특별했습니다.

모두 모여서 소마 미술관으로 이동한 우리는 "그림책이 살아있다"라는 주제의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세계의 어린이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림책 원화도 감상하고, 등장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든 다양한 디지털체험도 하다 보니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로 행복해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와 함께 온 학생들도 있었는데 만족도가 아주 높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점심식사를 위해 박물관을 나온 우리는 그늘 아래 돛자리를 펴고 반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시락과 푸짐한 간식에 맛있게 먹는 모습도, 서툰 한국어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모두 즐겁게만 보였습니다. 어느덧 식사시간이 끝나고 공원의 아름다움도 느껴보고 단체 게임도 하기 위해서 나홀로 나무까지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평화의 문"은 보수 중이어서 접근하지 못했지만, 88 올림픽 참가국의 국기가 휘날리고 있는 "영광의 벽"을 지나며 새겨져 있는 이름들의 의미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호수를 지나 조금은 가파른 몽촌토성길을 오르니, 구름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피크닉도 하며 푸르른 오월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후 프로그램은 A, B, C 세조로 나뉘어 나 홀로 나무 잔디광장에서 진

행되었는데, 첫 번째 미션은 "몸으로 한글 만들기"였습니다. 가장 많은 획의 글자를 만드는 팀이 이기는 미션으로, 학생들은 잔디에 누워 '떡볶이', '할', '꿀' 등의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는, 술래를 향해 달려가다가 멈추지 못해 결정적인 순간 언덕 아래로 미끄러지는 학생들이 웃음과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게임에서는 노래에 맞추어 춤추다 헤쳐 모이며, 끝까지 살아남으려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 학생들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해외선교위원회에 기증된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실크스카프 상품을 고르는 시간은 게임 못지않게 설레고 흥분되었습니다. 각자의 개성에 따라 맘껏 멋을 낸 스카프를 휘날리며, 우리는 토성 위 산책로를 따라 마지막 티타임을 가지기 위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인조잔디 그늘 아래 냉음료로 더위를 식히려 모여 앉은 우리들은 오전보다 조금은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위해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 그리고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친구들. 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80년대를 살아냈던 우리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 한국이 이룬 성공을 선망하며 이 땅을 찾은 그들에게 무엇인가 해 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전에 한국인 유학생 중 많은 이들이 선진국에 유학 가서 크리스천이 되어 한국에 돌아온 것처럼 이들도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길 바라며 이땅에 온 나그네의 한 영혼이라도 섬긴다는 귀한 사명감으로 선생님 한분 한분이 선교인이 되어 선하신 하나님 인도 아래 더 큰 복으로 인도하는 통로로 쓰이는 우리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김애리 권사 / 외국인유학생선교부



미션 빌더스, 함께 하는 무지개잔치



전교인 무지개잔치



즐거운 시간 보내는 곳으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 덕분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무지개잔치 위해
처음왔는데 알리고
너무 재미있네요~!!
좋은 행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기 첫 어린이날한테
의미있는 시간 보내고 갑니다.
준비해주신 교회와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

바이킹탈때 너무 행복했다.(?)
나중에 또 오고싶다



- 2026.5.5 어린이날 -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오늘 하루 정말
재밌고 행복하게 보내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 '무지개 잔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과 사랑
이네요!! 감사합니다 ~

나는 하나님
무지개 잔치를
갈 수 있게 해주
셔서
재미있었어요.

여러 가지 놀이기구
공짜로 탈 수 있는
다들 재미있어
단통 공짜의 행복!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놀이기구
맛있는 음식 먹으며
소중한 추억
남겼어요!
즐거웠어요!

3개월 가장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갑니다 ~
좋은 행사 준비해주신 봉사자들
감사합니다 ♡
음식이 조금 더 많으면 좋았을거 같아요!
주일에 참석합니다 ~

놀이기구중 바이킹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구룡도 구르 알찬
내용으로 즐거운
어린이날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린이날, 어린이날만
아니라, 전교인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주신
데에, 주님의교회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무지개잔치
역대 최고!! ♡
타코야키 너무 맛있어요.
내년에 또 올게요 ~

처음 방문했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내년에도 꼭 참석할게요 ♡

종이게게 종이방 날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아이와 부모
까지가 감동이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타코야키 정말 맛있
민들레 안에 딸기 더워서 맛있고
채소를 많이 넣어서 맛있어요.

무지개처럼 다채롭고 신나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A



친구랑 와서 즐기고
유로벤치, 바이킹 등
여러 체험과 먹거리가
있어서 좋았어요!!

매해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도 최고! 봉사자분들도
최고입니다 ~

군경선교부
진중세례식

전선에서 피어난 믿음의 꽃

설레는 출발과 전선을 향한 여정

2026년 4월 11일 토요일 이른 새벽, 군선교 대원은 저마다의 집을 나서 교회에서 기다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오전 7시 30분, 김주환 목사님의 간절한 출발 기도를 시작으로 우리를 태운 버스는 철원 십자군교회를 향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군경선교팀이 정성껏 준비한 꼬마김밥과 간식을 나누며, 오늘 만나게 될 장병들에게 전할 하나님님의 사랑을 미리 마음에 담았습니다.

안보의 현장에서 마주한 분단의 현실

오전 10시 20분경, 전방 접경지에 다다른 일행은 군종 목사님의 안내를 따라 검문소를 통과해 최전방에 위치한 백골전선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을 전하시는 박찬우 군목사님과 철책을 지키는 장병들을 위해 우리는 한마음으로 간절히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끊어진 금강산 철길 다리와 이어 멸공 OP에서 바라본 DMZ는 남북한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팽팽한 긴장감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1992년 5월 22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한 무장간첩 3명 전원을 사살한 ‘은하계곡작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작전에 직접 참여했던 친구를 통해 이미 전해 들어 알고 있던 이야기였지만, 막상 그 현장에서 다시 듣고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당시의 긴박함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 작전에 목숨을 걸었던 친구와 장병들에 대한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이 마음 가득 차올랐습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북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생명의 말씀

십자군교회에 도착해 예배를 준비하던 중, 어디선가 병사들의 우렁찬 구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선교 대원들은 교회로 입장하는 용사들을 박수로 맞이하였습니다. 오후 2시, 김병학 군목사님의 인도 아래 자원한 용사들의 악기 연주와 함께 찬양이 시작되었고, 교회는 200여 명 장병들의 합창과 울동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정준호 장로님의 기도인도와 권진영 권사님의 성경 봉독이 이어진 후, 아이네오 중창단의 찬양은 훈련에 지친 병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고, 성전 가득 울려 퍼진 화음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지친 영혼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어진 예배에서 김주환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힘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군 생활이라는 광야의

시간 속에 선 장병들에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준 이 말씀은 백골용사들의 가슴에 든든한 영적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감동의 세례 예식

머리를 짧게 깎고 무릎을 꿇은 용사들의 모습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군인의 강인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을 동시에 갖춘 그들이 "예!"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을 때, 새로운 삶을 향한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선교 대원들은 부모의 마음으로 장병들의 머리에 맺힌 세례의 물기를 정성껏 닦아주며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세례 후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마주한 장병들의 환한 미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군선교의 귀한 열매였습니다.

빛과 소금의 군사가 되길

모든 예식을 마치고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 속에는 믿음의 형제가 된 백골용사들과 군선교 대원들의 당당하고 환한 미소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번 진중 세례식은 단순히 물로 씻는 예식을 넘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네오 중창단의 찬양 가사처럼, 백골용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가 준비되고 그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김주환 목사님, 전선에서 헌신하시는 군목사님과 군선교사님, 먼 길을 함께해 주신 장로님들과 군선교 대원들, 그리고 믿음의 군사로 거듭난 3사단 장병들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군선교 사역은 몇몇 사람의 수고만으로 감당되는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꾸준한 관심과 기도, 그리고 함께하려는 마음이 모일 때 더욱 힘 있게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가 귀한 사역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군선교의 비전에 공감하며 기도와 참여로 동역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성호 안수집사 / 군경선교부장

(사)섬김과나눔
마천종합사회복지관

라면 한 그릇으로 이웃과 연결.. 서울마음편의점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외로움을 느끼는 주민들을 위한 이색 커뮤니티 공간 ‘서울마음편의점 송파점’이 문을 열었다.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재개발 지역 내 주민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 공간으로 서울마음편의점 송파점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복지관은 2019년부터 지역 내 1인 가구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주민발굴단을 양성하고,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써왔다.

이번 공간은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됐다. 복지관 관계자는 “주민들이 보다 일상적이고 편안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마음편의점 송파점은 복지관 외부에 마련된 상점 형태의 열린 공간으로, 서울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간은 ▲라면을 매개로 소통하는 ‘푸드존’ ▲이웃과 교류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관계교류존 및 1인 휴식존’ ▲건강 관리와 상담이 가능한 ‘캠핑·헬스존 및 상담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누구에게나 친숙한 먹거리인 라면을 매개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하고, 초록색 지붕의 레트로 감성을 살린 외관으로 심리적 접근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복지관 측은 이 공간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일상 속 교류를 촉진하고, 고립을 예방하는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마음편의점은 마천동 주민뿐 아니라 송파구민과 서울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된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웃들이 이곳에서 외로움을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은 주님의교회 부설기관인 (사)섬김과나눔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희은 집사 / (사)섬김과나눔

마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부요청

기부영역	기부 방법
현물	- 현물을 복지관으로 배송 예) 라면 1박스(매월), 쌀 10kg(매월), 생필품, 건강식품(영양제) *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을 부탁드립니다.
현금	- 정기적 기부(약정금액) : CMS후원, 계좌이체후원 - 일시적 기부 : 계좌이체후원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2-429430

* 문의 :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고립예방팀 및 후원담당자(액티브시니어팀)
02) 449-3141

(사)섬김과나눔
무의탁생활지원부

사랑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5월 4일,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무의탁생활지원부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마천동과 거여동에 거주하시는 독거 어르신들께 어버이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무의탁 생활 지원부는 매주 월요일마다 약 90여 가정에 죽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 첫째 주 월



요일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148가정에 선물을 전했습니다. 이번 선물은 가벼운 겉옷과 속옷, 롤케이크로 정성껏 준비되었습니다. 봉사자들은 네 팀으로 나뉘어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했고, 선물을 전해 드리며 안부를 묻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홀로 어버이날을 맞이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봉사자들과 함께 나눈 짧은 만남이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봉사자들은 눈을 감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겨야 할지 몰라 늘 사랑의 빛을 느끼곤 했지만, 교우님들이 드린 귀한 헌금을 통해 어르신들께 사랑을 전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큰 은혜와 감사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신형섭 장로

호스피스부

공활의 마음으로 피어나는 호스피스 섬김

서로가 꽃, 서로가 기도

지난 4월 29일 수요일에는 호스피스 사역의 의미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뜻깊은 시간으로 드러졌다. 독일 해로() 호스피스에서 사역 중인 박희명 선교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마태복음 9:35-38)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으며, 호스피스 사역에 마음을 둔 4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했다. 이날 호스피스부원들은 특송으로 ‘혼자 견지 않을 거예요’를 찬양하며,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봉사의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다.

공활은 곁에 머무는 사랑

박희명 선교사님은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심에는 공활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전했다. 공활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픈 자의 곁에 머무는 구체적인 사랑임을 강조했다. 이어 독일 베를린에서 파독 광부와 간호사로 살았던 어르신들을 섬기는 해로 호스피스 사역을 소개했다. ‘존택스 카페’를 통한 예배와 식사, 치매 환자 방문, 호스피스 돌봄과 장례 지원에 이르기까지 삶의 끝자락을 동행하는 이야기는 참석한 성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교회의 역사와 함께 이어온 호스피스 사역

이날의 말씀은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호스피스 사역도 다시 돌아보게 했다.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사역은 1990년 한양대병원 수요일예배 방문과 마사지, 목욕 봉사를 시작으로 이어졌고, 1993년에는 제직회 한 부서인 대외봉사팀으로 정식 출발했다. 1994년에는 한국 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무지개 호스피스의 전신에서 12명이 교육을 수료하며 본격적인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했다. 이후 2026년까지 700명 이상의 봉사자를 양성했고, 여러 병원과 장애인 시설, 복지기관, 가정 호스피스 현장에서 섬김을 이어왔다.

손끝의 온기로 전해지는 섬김

현재도 호스피스부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샘물호스피스를 방문해 환우들에게 아로마 발마사지를 제공하고, 사랑의 뜨개질로 만든 겨울모자와 워머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의정부의료원 등 여러 병원의 호스피스병동에서 발마사지와 침상 목욕으로 환우들의 곁을 지키고 있다. 샘물호스피스와 아주대학교 경기지역 암센터, 성빈센트병원 등에 전달된 사랑의 모자는 병원 관계자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곳에 계속 전해질 예정이다. 올해 어버이날에는 성남의료원 호스피스완화병동에 여름모자를 전달해드렸다.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생명 돌봄

호스피스 사역의 지경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주님의교회 호스피스부는 베트남 호찌민시 스프링 호스피스를 위해 기도와 성금으로 동역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숄바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준비하는 선교사와 현지 의료·복지 관계자들이 샘물호스피스 봉사 현장을 방문해 봉사의 마음과 자세, 발마사지 방법 등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작은 섬김이 또 다른 땅의 생명 돌봄으로 이어지는 귀한 장면이었다.

공활이 피워내는 동행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사역은 교회의 역사와 함께 무르익어 왔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마음과, 삶의 마지막 길까지 외롭지 않도록 곁을 지키려는 기도가 이 사역의 중심에 있다. 지금도 이 사역은 더 많은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환우들을 섬기기 위한 승합차량 운전 봉사자가 필요하다. 누군가의 아픔을 향한 공활이 기도가 되고, 손과 발의 섬김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기도로 연결된 공동체다. 공활의 마음이 멈추지 않는 한,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사역은 앞으로도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의 곁에서 조용히, 그러나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함글함글**

교사주일
청소년숲
교사힐링데이

최고의 선생님을 위한 가장 화려한 초대

5월 17일(주일), 청소년의 영혼을 품고 헌신하시는 귀한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 9시 중예배실에서는 청소년숲 연합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주찬양 목사님께서 <함께 걸어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으며, 말씀 이후에는 전체 교사가 앞으로 나와 ‘주님, 내가 교사입니다’라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사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후에는 오랜 기간 청소년숲(중등부, 고등부, 어와나트랙/저니) 사역에 헌신해 오신 선생님들께 근속상을 수여했습니다.

- * 10년 근속: [어와나] 임성훈, 정경화 교사
[고등부] 김관옥, 배세진, 신하림, 정아림 교사
- * 15년 근속: [어와나] 어진원, 이진 교사
[중등부] 여윤정, 유지은 교사
- * 20년 근속: [중등부] 김지수, 구현숙, 윤기선, 전숙정 교사
[고등부] 안경희 교사

이후 오전 10시 4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다목적관 5층 체육관에서

‘교사 힐링데이’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콘셉트는 ‘가면 무도회’로, 연회장에 입장하는 모든 분께 가면을 나누어 드렸으며 멋진 복장을 직접 준비해 오신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청소년숲 위원장 신성철 장로님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 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위십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이후 맛있는 뷔페를 즐기며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고, 교역자들이 준비한 콩트, 포크댄스,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숲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격려하는 시상식을 진행하며 행사를 마쳤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붓아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엿보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청소년숲이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 아이들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성장하기를 앞으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계원 목사 / 청소년숲 총괄

청년부
HB요리사와
함께한 청년주일

말씀으로 버무린 하나 됨의 맛

지난 5월 17일 주일 오후, 지하 식당에서는 평소와 달리 다양한 식재료와 청년들의 욕까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청년주일을 맞아 아주 특별한 기획으로 준비된 요리경연대회, 바로 'HB요리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요리사들의 등장

이번 행사는 최근 대중적으로 사랑받은 요리 경연 프로그램의 형식에서 착안했지만, 우리 청년부에게는 'HB요리사' 즉, 'History Builder 요리사'로 곧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세워가는 청년들'이라는 귀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행사를 기획하고 광고할 때만 해도 "과연 청년들이 얼마나 참여할까?", "요리에 관심을 가질까?" 하는 작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행사가 시작되자 예상보다 많은 약 170명의 청년들이 함께하였으며, 청년주일의 자리는 뜨거운 기대와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말씀 위에 버무린 '청년들'의 레시피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임원단이 마음에 품은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이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이 말씀처럼 이번 행사의 핵심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은사를 가진 청년들이 하나의 셀로 묶이고, 다시 하나의 조를 이루어 함께 요리하는 과정 자체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셀별로 구성된 총 12개의 조는 된장찌개, 감자전, 비빔국수 세 가지의 요리 메뉴를 두고, 메뉴별 네 개의 조로 나뉘어 치열하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경연을 펼쳤습니다. 임원단에서 제공한 공용 재료 외에도 각 조가 정성껏 준비해 온 '비장의 재료'들이 등장할 때마다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4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누군가는 현란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손질하고, 누군가는 능숙한 노하우로 불을 조절했으며, 또 누군가는 팀원들을 독려하며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도마 위의 경쾌한 칼질 소리와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 지글지글 튀겨지는 고소한 냄새가 식당을 가득 채우고 청년들의 웃음소리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화음이었습니다. 혼자라면 만들기 어려웠을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요리들이 '한마음' 안에서 하나둘 완성되어 갔습니다.

공정한 심사, 그리고 더 아름다웠던 섬김

요리가 완성된 순서대로 종을 울린 뒤 심사위원단 앞에 놓였습니다. 박성철 목사님, 김세연 목사님, 김미선 권사님, 은선희 권사님으로 구성된

4인의 심사위원단은 비주얼부터 맛, 그리고 창의성까지 꼼꼼하게 살피며 따뜻하면서도 세심한 평가는 청년들의 마음을 긴장하게 하면서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요리가 훌륭했지만 순위가 발표되는 순간, 청년들의 반응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했기에 환호와 아쉬움의 함성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순위 발표 이후였습니다. 대회의 규칙에 따라 각 메뉴별 '뒤에서 1등'을 한 팀이 뒷정리를 맡게 되었는데, 누구 하나 찡그리는 기색 없이 기쁜 마음으로 고무장갑을 끼고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승패를 떠나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섬기는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청년주일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더 깊어진 교제

경연의 열기가 지나간 뒤에는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HB요리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장단에서는 땀 흘려 정성껏 삼겹살을 초벌해 주셨고, 이어 부장단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바비큐 식탁 교제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청년주일은 예상보다 풍성한 참여로 감동을 더했을 뿐 아니라, 늘 뒤에서 묵묵히 기도해 주시던 부장단과 청년들이 한자리에서 깊이 어우러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최민기 부장님의 시작기도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고,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부장단의 섬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얼마나 청년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오셨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 음식을 권하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단단하게 연결된 공동체인지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행사는 끝났지만, 식당을 가득 채웠던 온기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귀한 행사를 기획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모든 손길과, 기쁨으로 동참해 준 170명의 청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HB요리사'를 통해 맛본 하나 됨의 기쁨이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믿음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경찬 청년 / 청년부 회장



주님의교회
장로회신학대학교
발전기금 전달 및 협력 예배

바른 신학과 사역자를 세우는 동행

지난 2026년 5월 6일(수), 우리 주님의교회는 선지 동산인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박경수)를 방문하여 대학 발전기금 전달식을 갖고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과 함께 은혜로운 협력 예배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시작된 예배는 이창호 목사(대외협력처장)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조병길 서기장로의 간절한 기도인도에 이어, 김화수 담임목사는 누가복음 5장 1~11절을 본문으로 "바르게 알면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제하의 설교를 전했다. 말씀을 통해 미래의 영적 지도자가 될 신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삶의 실천적 변화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깊은 울림을 주었다.



예배 후 이어진 전달식에서 주님의교회는 준비한 대학 발전기금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자리에는 김화수 담임목사를 비롯해 박민규, 박준범, 김계원 목사와 조병길 서기장로 외 8명의 장로가 참석하여 성도들의 정성 어린 마음을 함께 전했다.

박경수 총장은 "주님의교회가 보여준 사랑과 후원은 신학교가 바른 신학을 정립하고 유능한 사역자를 배출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전달식에 참여한 일행은 예배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주님의교회와 장로회신학대학교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함께 동역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발전기금 전달을 통해 우리 교회가 뿌린 기도의 씨앗이 장신대 교정에서 귀한 사역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한다.

함줄함울

주님의교회 2026 공동의회 항존직 선거

장로 피택자(1명)



이신형

안수집사 피택자(7명)



권기덕

김봉호

김중우

박준

박준엽

송태현

조용민

권사 피택자(16명)



김미향

김수향

김영숙

김재실

노정민

신미영

신미향



신정미



안명숙



양혜림



염수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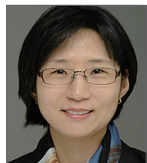
이미영



이선옥



이영숙



이영애



정채화

교회일정

5/24(주일)	성령강림주일
5/30(토)	아름다운부모학교 8기 종강
5/31(주일)	삼위일체주일, 청소년주일, 가정주일, 세례,입교식
6/3(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7교구)
6/13(토)	온세대새벽기도회, 진중세례식
6/14(주일)	정기당회

알립니다

1. 블레싱 남성기도모임

일시 5/30(토) 7:00~8:00
장소 소예배실(1층)
문의 김요한 목사(010.5187.0127)

모집합니다

1. 상례부 운전봉사자 모집

사역 장례예배 운전 봉사
자격 1종보통면허 소지 및 승합차 운전 가능자
문의 김성배 안수집사(010.3656.7559)

2. 국내 다문화선교를 위한 자원봉사 교사 모집

장소 곤지암 비전교회
기간 6~8월(주1회)
문의 및 신청 장동현 안수집사(010.9046.8752)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화~금)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함줄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임익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줄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줄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